

## XVI. 교역자 재교육의 체제정립 방안

황도국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1. 이끄는 말 .....	135
2. 문제 제기 .....	136
3. 교역자 재교육을 위한 제언 .....	137
4. 맺는 말 .....	142

### 1. 이끄는 말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할 것」<sup>1)</sup>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운이다」 교단의 미래는 교육의 여하에 따라서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단은 창교 이래로 끊임없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원기 75년 11월 11일 제3회 교무회의 결의와 동년 12월 10일 임시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발전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예비교무 교육 발전안 완성 연도인 원기83년 11월 총회시 평가한 결과를 보고 하므로써 체제 정비의 일단락을 지었다. 그러나 평가보고 중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는 평가위원 대다수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2의 교육 발전안을 창출해 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교육

\* 황도국 위원 : 원기 84~85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교학대학 서원관 지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1) 정산종사법어 「세전」 '교육에 대하여'

발전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 그리고 개혁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하는 21세기를 맞이했다. 좌산 종법사께서는 교단 3대 2회 표어를 “밖으로 미래로 사회로 세계로”를 천명하시어 교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교정원 기획실은 출가·재가 교도 100인으로 3대 2회 설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계획(12년)·중기계획(6년)·단기계획(3년)을 성안하려고 진행중에 있다. 이 모든 계획은 교역자의 자질과 역할능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계획에 그쳐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교역자의 자질 향상과 역할 수행을 위한 능력 신장은 대단히 중요한 중심체이다. 여기에 기성교역자 재교육의 절실함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 2. 문제 제기

지난 서울교구 청운회 “교단창립 100년을 향한 원불교 비전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이정재 교도는(경희대 국어국문과 교수)는 500여 교도가 모인 발표에서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단내에서는 이미 권위적 분위기가 자리잡아 가고 세속적 가치가 우선시 되며 교무와 교도들의 양분화 현상이 일어나며 교무들의 나태한 공부심과 세속화의 경향 등이 지적되고 있어 원불교의 매력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교역자들의 이탈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과 외부 수련에 대한 관심과 참가가 늘어남, 신앙과 수행에 대한 아쉬움, 지적 욕구충족에 대한 갈증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기성교역자 재교육 문제는 교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기성 교역자 재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나온 문제가 아니다. 줄기차게 요청되어 온 문제인데도, 그 동안 전혀 시발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교도들의 교역자에 대한 아쉬움과 바람은 더욱 큰 목소리로 요청되어지고 있다. 교화의 활로는 보이지 않고, 교역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으며 교

역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의 정비와 개혁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사회가 전면적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위기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발전의 항구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총체적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사례는 자주 있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19세기의 초기에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국력과 자존을 회복하기 위하여 훔볼트(Humboldt)와 피히테(Fichte) 등의 지도력하에 교육개혁을 단행한 바 있었고, 그것이 다른 여러 나라의 국민교육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모형으로서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며, 1929년을 전후하여 대 경제공황을 경험하였을때, 미국 사회는 당시의 교육이 현실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진행된 개혁의 움직임과 함께 형성된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은 현대적 학교의 전형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최근 IMF의 위기는 지식기반의 취약에서 왔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지식 기반은 21세기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폴 로머 교수는 말했다. 우리 나라도 교육개혁의 중요한 기로에 처해 있다.

우리 교단도 그 동안 전 교역자의 의지를 모아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을 창출하였고 체제 정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완성 년도의 평가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제2의 교육발전안을 창출하여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을 끊임없이 보완 개혁하여야 하는 것과 아울러 기성 교역자 재교육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속적인 재교육의 추진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교역자 재교육을 위한 제언

교역자 교육은 그 동안 예비교역자 과정을 거쳐 출가식을 마친 다음부터는 교육의

문제는 교역자 개인의 수준에 맞겨진 상태였다.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닿으면 좀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화지에서 또는 기관에서 봉직하며 스스로 공부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제 교단은 교역자 교육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학습 수준에서 공동체적 조직으로서의 학습조직의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단발전의 핵심은 사실상 교역자의 인격과 지적 수준, 그리고 공동체적 봉공 활동의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끊임없이 교역자의 자질과 교화역량을 개발하고 높이기 위하여 집단적 재교육의 길을 열어야 한다. 교단은 홀로 향상이 아닌 더불어 발전하고 함께 나가는 재교육의 장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총부 교정원 차원에서의 교육 실천 방안과 교구적 차원의 실천방안, 개별적 차원에서 교육영역의 확대로 어떻게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단적인 측면에서

교단적 측면에서 교역자 재교육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내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역자 재교육은 미룰 수 없는 교단의 과제요,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 시대의 현안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교역자 재교육의 시행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방향을 정하며, 재가·출가에게 폭 넓은 홍보를 통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풍토를 조성하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ㄱ. 교역자 재교육 추진기구 설치

교역자 재교육은 모든 교도의 관심사이고, 교단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추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도 모른다. 진행과정에서 논의가 더욱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재교육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변질,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역자 재교육 추진기구를 중앙총부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교무 교육발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예비교무 교육발전위원회를 완성 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바로 해체하였던 점을 많은 교역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자 재교육을 위한 자료수집과 논

의를 주도하며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총부에 추진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ㄴ. 교역자 재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의 개혁

예비교역자 교육기관만 하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확대하였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이것은 교단의 교육에 대한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육업무는 폭주하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없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이론의 도입과 적용,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교역자 재교육의 중대한 사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행정의 담당자들은 교육의 현장과 교화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재교육에 대한 개혁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절차를 밟으며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과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ㄷ. 교역자 재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교역자 재교육을 위하여 모든 교역자와 재가교도들에게 교역자 재교육을 추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교단의 미래는 예비교무의 교육의 바람직한 정립과 아울러 교역자 재교육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가·출가의 공동체적인 합의하에 범교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ㄹ.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활동

교역자 재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하고 평가 위에 보완하고 계획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 교역자가 공감하고 호응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활동이 적나라하게

이루어져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㉑. 교육과정 이수시 인사정책에 반영

교역자 재교육은 교정원 각 부서의 공동체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교역자 재교육은 교화능력의 신장을 통하여 교화의 활성화를 꾀하며, 교단행정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교당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교단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교역자 재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교단발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역자에게는 인사정책에 반영하여 교육을 받은 만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 ㉒. 중앙총부 차원에서 교역자 재교육 방안

- ① 대학원 대학교를 교역자 재교육 기관으로 병용하는 방향 모색.
- ② 영산대학교와 원광대학교를 활용하는 방향 모색.
- ③ 각 훈련기관을 교역자 재교육기관으로 병용하는 방향 모색.

※ 종교적 품성의 도야와 교화 역량의 배양, 봉공활동의 정신 확립, 창조적 지성의 함양에 따라 교육기관을 병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④ 교구차원의 재교육 방향 운영시 교구간 교육내용의 조정역할.

#### 2) 교역자 재교육을 위한 팀(TIM)제 운영

- ① 교구(교당, 기관) 구성원의 수준을 사전 조사하여 명확히 파악한다.
- ② 적용해야 할 재교육 프로그램을 그 기관과 교당에 맞게 설정한다.
- ③ 그 기관에 적합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적용하여 수준을 끌어올려 준다.
- ④ 정기적으로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도한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준다.(follow up/사후관리지도)
- ⑤ 필요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는 기관의 자율적인 요청에 의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 이 팀(team)제의 운영은 3~4인이 한 팀이 되어 교구별로, 기관별로 순회하며 구성원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교단의 정책감사와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서 교단 업무 효율의 증대와 전체 교단의 상황을 명확히



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4. 맺는 말

교육의 바람직한 개혁은 21세기 우리 교단의 좌우하는 이 시대의 역사적 과업이다. 그 동안 전 교역자들의 의지를 모아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계획을 완성하였고, 다시 제2의 교육발전안을 창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교역자 재교육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단 설계중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많지만, 이 교역자 재교육 문제만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따라서 교단의 지도계층은 교역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분석하여 하루빨리 재교육을 시행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교역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편성하고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성쇠와 흥망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다 같이 의지를 모아 교역자 재교육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겠다.